

순정이

연중 제 28주일

제 1독서 : 지예 7, 7-11

제 2독서 : 미브 4, 12-13

복 음 : 마르 10, 17-30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미브 4, 12a)

강론

불안하고 초조한 부자 청년

이종원 신부 / 서학동 천주교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부자 청년이 허둥지둥 달려와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십계명을 따라 살아라!” 그 청년은 “선생님,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떠나가 버리는 모습은 그 동안 자기를 이끌어 온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자기가 찾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도 못 하는 것은 참된 것을 찾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의 욕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바쁘게 허덕이며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을 땅에 쌓기보다는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우리도 부자 청년같이 무엇인가에 쫓기고, 초조함과 불안 속에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재산, 돈과 외적인 것에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께 의지하며 이웃과 나누며 선행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달아 났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하고 간청합니다.

소리

우리 글 ‘한글’

‘칼러 자체가 모노톤을 벗어나고 액세서리도 크리스털로 코디네이트 해서 팬던트로 포인트를 주고...’ 분명 우리 나라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인데 우리 말은 별로 들을 수가 없다. ‘누네띠네’ ‘마쭝니’ ‘키미테’ ‘하노백’...

우리들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국적불명의 의사외래어들이다. 양장·양품점이 많이 있는 거리를 가면 외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가게이를 거의가 외래어로 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라도 외국어로 말을 해야 고급스러워 보이고 상스런 욕을 우리 말로 하면 욕이고 외국어로 하면 욕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외국어는 고급언어이고 한글은 저급언어라는 의식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프랑스어와 영어를 꼽는다. 그러나 프랑스어와 영어처럼 비합리적이고 불규칙한 언어도 없다. 그런데도 프랑스어와 영어가 아름다운 언어로 손꼽히는 것은 국력 때문이 아니라 전국민이 자기 나라 말을 사랑하고 애써 가꾼데서 비롯됐다.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과학 전문지인 ‘디스커버리’는 한글을 “모음과 자음이 쉽게 구별되며 입술과 혀의 위치가 확실하며 28개의 자모가 수직·수평으로 조합을 이뤄 반듯한 사각형을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극찬했다.

오늘 우리는 오백사십팔번째 한글판포기념일을 맞았다. 우리도 한글을 다듬고 가꾸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손꼽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글을 비하시켜 스스로 부끄러워 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겠다. 허를 이상하게 꼬블러 묘한 발음을 내는 기형적 현상은 이제 사라져야겠다. □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45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사악의 하느님 ! (창세 32, 4-22)

이 과의 이야기는 예사오의 살의에 찬 분노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도망자의 불안한 신분으로 아버지의 집을 나선 야곱은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꿈에 천사를 만나서 하느님으로부터 약속과 축복을 받고 커다란 위로와 희망 속에서 순례의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형 예사오를 정면으로 만나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친척하고 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여기서 야곱은 형 예사오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에게 하인들을 보냈다. 야곱은 하인들에게 비굴하리만큼 형에게 낮추면서 문안을 올리게 한다. 야곱이 하인들을 통하여 형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몸붙여 살았다는 구차한 변명과 그 동안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는 보고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는 형에게 재산이 많음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저자세 말투로 보아 "원하신다면 형님과 이 재산을 기꺼이 나누고 싶습니다"는 원의와 "아버지의 유산은 형님께 완전히 양보하겠습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사오의 전갈은 가져오지 않고, 그가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상황만을 보고한다.

이에 야곱은 혼비백산할 지경이 되었다. 사실 예사오는 거칠은 세일 지방에서 살아남기 위해 잘 훈련된 부하들을 언제나 거느리고 다녔다. 야곱은 하인들의 보고만 받고, 잘못 이해하여 형 예사오가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진격해오는 줄로 알았던 것이다. 어떻게 야곱은 궁여지책으로 무리를 두 진영으로 나누는데 이는 만약 한 진영이 깃잡히면 다른 한 진영이라도 건져 내기 위해서였다.

야곱은 이제 인간적으로 필요한 조처는 다 취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도우심에 매달리는 것 뿐이다. 야곱의 기도는 죄 고백의 요소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성서의 기도를 반영하고 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아버지 이사악의 하느님, 당신은 선조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고, 저에게도 나타나시어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네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31, 3)라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켜 드린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

다음,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하소연한다.

"저를 형 예사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기서 예사오에게 학살된다면 '네 자손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불어나리라'는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항변한다.

기도를 마친 후 야곱은 "그 날 밤 자기 소유 가운데서 예사오에게 바칠 선물"을 골라 낸다. 양, 소, 낙타, 염소, 나귀들을 암수 골고루 섞어 550마리의 가축을 예사오에게 바칠 선물로 따로 갈라 놓았다. 이것은 대단한 선물인 것이다. 이 선물에는 형 예사오에게 호된 축복의 결과를 되돌려 주려는 야곱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야곱은 앞서 가는 하인들로 하여금 예사오에게 선물을 바칠 때마다 "당신의 종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라고 말하게 한다. 이런 겸손한 말투와 값진 선물들을 대하면서 화를 내고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예사오를 만나기에 앞서 보여 준 야곱의 태도는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해 어떻게 사죄해야 하는지와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어떻게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준다. 야곱은 자신을 못난 동생, 예사오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사죄의 표시로 값진 선물을 바치는가 하면 예사오에게 자신의 선물과 진실한 마음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간절히 청한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동시에 하느님의 중재도 청하는 것이다.

박승근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 비뇨기과

박 승 근(다미아노)

김 종 화(실 비 야)

효자삼거리 전북은행 앞

☎ 225-3858

**이명복 박사의
시상·팔상 체질 감별**

(이제 전주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 재 갑(다두)

정 원 미(클라우디아)

완산구 중화산동2가 535-5

☎ (0652) 224-6207~9

황명건강회

천 호 장 의 사

장례용품 생산 및 장례의전 서비스

24시간 상담, 대기

한 규 학(안토니오)

☎ (0652) 253-0744

71-0404

무지개 종합화장품

송 춘 자(미키엘라)

목포당 옆

☎ (0683) 84-7271

교리상식

로사리오 성월 ①

로사리오 기도의 기원과 성월의 유래

로사리오란 '장미 화관', '장미 꽃다발'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이며 묵주, 혹은 묵주의 기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로사리오 기도는 성모송 하나하나를 드릴 때마다 장미 꽃송이가 되어 성모님께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을 바친다는 뜻이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 생애의 세 가지 신비를 묵상하면서 15번의 주의 기도, 150번의 성모송, 15번의 영광송을 바치는 것으로 그 기원은 중세 수도자들의 기도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 수도자들은 매일 시편 150편을 다 제창하였으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수도자들은 그 대신 구슬로 꿰맨 판을 이용하여 구슬을 헤아리며 주의 기도 150번을 암송하였다. 이런 관습이 평신도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오던중, 12세기부터는 주의 기도 대신에 성모송을 외우게 되었다.

오늘날의 로사리오 기도의 형식은 12세기경 도미니코 성인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다. 도미니코 성인이 알비파 이단자들의 회개를 위해 절실히 통회하고 기도하던중, 성모님이 발현하시어 로사리오 기도를 사용하여 악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때부터 각 지방을 순회하며 로사리오를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로사리오의 보급은 15세기에 도미니코회 수사인 알란 드 튀쁘가 로사리오 협회를 창립하면서 부터이다. 그는 이 협회를 통하여 수도자와 평신도에게까지 로사리오의 신심을 널리 전파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

로사리오 성월은 로사리오 기도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레판토 해전의 날(10월 7일)을 기념하여 교황 비오 5세가 이 날을 로사리오의 기념일로 정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10월을 로사리오 성월로 반포하였다.

교구 소식

- ※ 가톨릭 문우회 문학의 밤 : 10월31일(월) 오후7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초청강사-이혜인 수녀
- ※ 가톨릭 사진가회 불우이웃돕기 사진전 : 10월29일~11월7일 가톨릭센터
- 1. 축! 건진 : 10월15일(토) 오후3시 교창 성당, 10월16일(일) 오전10시30분 순창 성당
- 2. 천호 피정 안내 : 10월15일~16일 주재-오늘을 사는 신앙인, 강사-장용주 신부, 문의 73-6600
- 3.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 모임 : 10월16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 4. 예비신학생 신학교 방문 : 10월16일(일) 오전9시 광주 가톨릭대학교
준비물-미사도구, 제성가집, 운동복과 운동화 착용, 회비-5,000원(점심 제공)
※ 신학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5. 빈첸시오 교구 중앙이사회 : 10월15일(토) 오후3시 이평 빈첸시오의 집
- 6. 교도소 체육대회 : 10월14일(금) 오전9시 후원회원과 함께
- 7.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10월10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8. 일본어 개강 : 10월10일(월) 오전11시 가톨릭센터 3층, 회비-5,000, 여성연합회 주최
- 9. 군중신부 주소 안내
정삼관 신부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이기가 성당 ☎(0363)441-4033
정성만 신부 : 강원도 동해시 동해우체국 사서함 3호 해군동해 성당 ☎(0394)32-0487
- ※ 축! 영명 : 13일(성에드와르도) 김의철 신부님, 14일(성갈리스도) 정태현 신부님

요십이 (1102) 김병오



여사무원 모집

- 자격 : 천주교신자로서 컴퓨터기능 보유자, 25세미만 미혼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교적사본
- 제출마감 : 94. 10. 16까지
- 연락처 : 서학동 천주교회 ☎ 86-4929

호성동 성당

신축기금 마련 바자회

- 때 : 10월13일(목)~16일(일)
- 장소 : 호성동 성당 (전라여중 뒤, 승마장 앞) ☎ 241-1140

저농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하수
전량 태양초만 쓰는!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 각 분당 매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주문접수중 : 11월20일마감, 12월배달)

- 문의 : 순창성당영농조합 ☎(0674)53-8040, 52-1004

무지개 광고

간판, 현수막, 상패, 기념품

김창식(스테파노)

☎ (0652)252-0207
FAX (0652)252-0208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 · 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 · 임상병리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통로 다가고 입구
김태우(알폰소)
☎ 88-7717~8

**기아 자동차
남전주 지점**

세차 구입, A/S상담, 중고차 상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억(요셉)

☎(0652)87-6301~6
호출기 : 015-685-031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부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랑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 28주일
- ◎ 날마다 그 날 성서구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 1. "축" 본당의 날
성지순례-오늘, 장소-미리내 성지
- 2. 초등부 어린이양 잔치: 오늘, 율호관
- 3. 병자 봉성체: 14일, 병자가 있으신 가정은 사부실에 신청바람.
- 4. 반희장 피정: 12일 전 8시30분, 천호 피정의 집
* 반희장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5. 이 수녀님 휴가: 10~15일까지
- 6. 반미사 안내
· 중노4반-13일 후 3시
· 인후11반-14일 후 3시
- 7. 모임: ①부녀회(11일 어머니미사 후)
②제축형제회(15일 후 2시)
③대건회(16일 장엄미사 후)
④장우회(16일 장엄미사 후)
- 8. 다음주일(16일)은 효성동 성당 성전건립을 위한 2차헌금 있음.
- 9. 금주 청소: 인후1,3반
차주 청소: 인후4,6반
- 지난주 봉헌금: 884,530원 □ 2차헌금: 365,730원
- 교무금: 1,141,5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부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령

- ◎ 10월은 전교의 달: 예비자 인도에 정성용!
- 1.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시-수녀님반
목요일 저녁미사 후-보좌 신부님반
예비자 입교식: 오늘 공식미사중
- 2. 성지순례: 장소-미리내, 11월6일 오전 7시 출발
10월16일까지 사부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 금주의 가정 방문: 11일 오후 2시-태평동3반
12일 오후 2시-태평동1반 13일 오전 9시반-태평동2반
13일 오후 2시-태평동4반 14일 오후 2시-태평동5반
- 4. 미사시간 변경: 모든 저녁미사가 오후 7시로
- 5.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 6. 해설자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 7.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 8.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 9. 레지오 간부 교육: 11일(화) 오전 9시반~12시
- 10. 안나회: 13일 오전 10시
- 11. 성우회: 다음주일(16일) 공식미사 후
- 12. 성당청소: 15일(토) 천사의 모후Pr, 사도의 모후Pr
- 13. 금주 전례: 해설-조옥래, 독서-이갑규, 봉헌-장현상
- 14. 차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라경섭, 봉헌-최희자
- 지난주 봉헌금: 590,640원 □ 교무금: 2,829,800원
- <감사합니다>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부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전교의 달입니다.
- 1. 모임: ①안나회, 자모회-공식미사 후
②장년회-15일(토) 저녁
- 2. 성체 강복 및 성시간: 13일(목)
- 3. 구역형제회: 11일(화)-광기, 12일(수)-서당, 13(목)-내정
14일(금)-백암, 18일(화)-신흥, 19일(수)-어두
20일(목)-마치, 21일(금)-의암, 25일(화)-수원
26일(수)-신리, 27일(목)-색장
- 4. 초등부 어린이양 잔치: 오늘, 율호관
- 5. 금주 청소: 신비로운 장미Pr
- 6. 차주 청소: 천사들의 모후Pr
- 7.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최경림 ②김금자
봉헌-성대적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장덕용 ②오귀남
봉헌-이명수씨 부부
- * 십자성호의 뜻
①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고백이다.
②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고 죽으셨던 십자가를 표시한다.
③천주교 신앙심입 드러낸다.
- 지난주 교무금: 366,800원 □ 교무금: 257,000원
- 군인주일: 136,4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부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연중 제28주일(10월은 로사리오 성월, 전교의 달)
- ◎ 축! 영세: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영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 프란치스코3회: 10월9일(오늘) 오후 2시
- 2. 야의 울뜨레아 모임: 10월9일(오늘) 공식미사 후
- 3. 사목회: 10월11일(화) 오후 8시30분
- 4. 성심회: 10월11일(화) 오전 10시30분
- 5. 성모회: 10월16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6. 유아 세례: 10월22일(토) 오후 3시(사부실에 접수바람)
* 뜻이 있으신 분은 사부실 비품 구입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감사: 성전 중·개축 축복식과 성령세미나에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914,700원 □ 교무금: 1,098,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부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전교의 달)
- 1. 금주: ①전주교구 어린이양 잔치(전 9시30분, 율호관)
②자모회(전 10시)
③성심유치원 운동회(성심학교)
④예비자 교리 개강식(공식미사중)
⑤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⑥사목회(후 8시)
- 2. 본당 신부님 구역 사목방문:
11일(화): 오전-전동 1,2반, 오후-전동 3,4반
12일(수): 오전-전동 5,6반, 오후-전동 7,8반
13일(목): 오전-성체강복, 오후-전동 9반
14일(금): 오전-동교동 1반, 오후-병자 봉성체
- 3. 사라회: 11일(화) 오전 11시
- 4. 돈보스코회: 12일(수) 오후 7시30분
- 5. 성체강복 및 조배: 13일(목) 오전 10시
- 6. 구역반장 회의: 13일 오전 11시
- 7. 병자 봉성체: 14일(금) 오후 2시
- 8. 차주: ①바니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2,182,47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부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상근

- ◎ 효성동 성전 신축을 위한 바자회 2차헌금, 많은 후원과 참석바랍니다. 식권-사부실, 판매 13일~16일
- 1. 사목회 상담위원회: 13일 저녁 8시
- 2. 어린이양 큰 잔치: 오늘 율호관, 부모님들의 관심바랍니다.
- 3. "94 세계 가정의 해" 전국 가정대회: 오늘 서울 가톨릭 의대 꾸리아홀, 본당에서는 장상근 회장 가정이 참석합니다.
- 4. 교도소 체육대회: 14일 전 9시 "후원회원과 함께"
- 5. 가정방문: 11일 5-1반 후 2시30분(혹석골 포함)
13일 5-2반 전 9시, 5-3,4반 후 2시30분
- 6. 가정 축성미사: 오승환(아오스당) 11일 전 10시 주강103동219호
- 7. 탈삼미사: 연명 윤미카엘 9일 저녁 7시30분 극동 가동1002호
- 8. 회의: 성체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성가대-오늘 저녁미사 후
빈첸시오-12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14일 후 3시
성소후원의 날-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임마누엘-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청년회-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9. 신축헌금 및 교무금 미신일자: 사부실에 틀러서 확인하시고 신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58,330원 □ 교무금: 1,368,000원